

남조선의 개조 육조해능 스님의 설법집으로 간주되고 있는 <육조단경>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선(禪) 수행으로 전개토록 선불교의 실천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선사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문헌이다. 중국 당나라시대(700년)에 출현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연구하고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음은 이 책이 선불교 역사상 얼마나 중요한 저서인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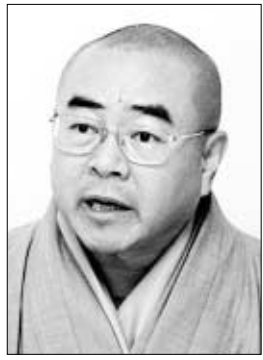
‘돈황본 육조단경’

성본 스님 역주

한국선문화연구원 / 1만8천원

선수행 체계 확립한 禪문헌

특히 금세기 초 중국 돈황에서 발견된 <육조단경>은 단경 연구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으며 현재까지 5종의 돈황본이 학계에 소개돼 전하고 있다. 영국과 중국의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이 책들의 제목과 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최초로 만들어진 <육조단경>의 원본을 필사해 유통된 것으로, 원초적인 형태를 제각기 유지하면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인 성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5종의 <돈황본 육조단경>을 서로 대조하고 새로운 교정본을 만들어, 이 책이야말로 최초로 만들어진 원본이라고 주장한다.



알기 쉽게 이야기식 해설 육조단경 탄생배경 등 수록

성본 스님은 “경전과 어록에서 전하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때만이 불교적인 인격을 이룰 수 있으며, 종생 구제의 능력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이 남긴 계승들이 담겨져 있다. 모두 한문으로 쓰여진 선불교의 어록을 현대인들이 접하게 쉽게 하기 위해 상세한 해설을 이야기 형식으로 달아 놓았다. 책 말미에는 그동안 저자가 연구해온 <육조단경>에 대한 총체적 설명과 탄생배경, 저자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육조단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선사들의 오도송’

무산 스님 지음

김영사 / 9천9백원

“해골물·맑은 샘물, 둘이 아니다”

선지식들이 깨침을 얻으면서 내뿜는 오도송(悟道頌). 이 고귀한 노래들은 고행정진속에서 피워낸 한송이 마음의 ‘꽃등불’ 이기에 청풍납자들에게 전 수행 지침서요, 사부대중들에게는 길잡이가 된다. 1천여년의 한국불교 역사에서도 깨달음의 세계를 구축한 선지식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선원에



삼국시대~현대 선지식 37명 행장·오도송 70여편 담아

서 참고하고 있는 오도송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의 선사들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지식들의 오도송은 ‘고사선(枯死禪)’이 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 불교계의 현실이다.

삼국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선지식 37명의 행장과 70여편의 오도송을 모은 <선사들의 오도송>은 무산 스님(경주 해회선원)이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20여년간 우리나라 고승들의 문집과 전기, 선종사 문헌들을 탐독한 후 이룬 결실이다. 이 책에는 신행, 동진, 원진, 원중, 일선, 제월, 청매, 편양, 환성, 상월, 취여 선사 등 진리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정진 한두 깨달음을 얻은 선지식들의 가르침과 같은 법음이 담겨져 있다. 어려운 한문이 많이 나오는 오도송들이라고 책장을 넘기면서부터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오도송에 해석은 물론 일일이 한글로 음을 달아 놓았으며, 어려운 용어에는 반드시 말미에 자세한 해설을 붙여 쉽게 읽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설두·원오 스님 선문답 풀이

‘벽암록’

정원 스님 역해
수미산 / 14만원

<벽암록>은 설두스님이 선적(禪的)내용을 담은 설화, 일사(逸事)를 100문제로 모아 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운문 형식으로, 원오스님이 산문 형식으로 표현한 책이다.

원오스님은 영천원의 방장실, 즉 벽암실에서 ‘설두 백적송고(雪寶百則頌古)’를 애송하고, 자신의 선기(禪機)와 문장을 활용해 설두스님이 선택해 놓은 일백가지의 공안(公案) 머리에 비평을 쓰고, 공안과 송고의 각구에는 풍자적 단평을 내리고, 다시 그 공안과 송고에 비평적 주해를 덧붙였다. 말하자면 벽암실에서 쓴 선(禪)의 비평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에는 선문답에 관한 일화가 많이 등장한다.

“어느날 조주스님이 투자(投子)스님에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돌연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투자스님은 밤에 다시 살아난 죽은 사람이라면 유명일지도 모른다. 유명을 판별하자면 밤에 해서는 안되니 날이 밝은 다음날 정체를 아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했다. 이는 조주대사(趙州大死)로 유명한 대목이다.

이러한 선문답은 우리가 망각하였던 정신세계를 단순한 한마디로 표현하여 크게 열어준다. 정원 스님(명사 주지)이 해석은 물론 글씨까지 직접 쓴 <벽암록>은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 알기 쉽게 편집해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마음으로 본 현실의 세계를 치열한 구도정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왜 경멸·천대 받았을까

‘금강경과 함께 역사속으로’

김광하 지음
운주사 / 1만원

<금강경>을 읽는데 왜 경멸과 천대를 받을까? 혹자는 이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을 하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강경과 함께 역사속으로>의 저자인 김광하(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운영위원장)는 “<금강경>이 역사적 출현 당시 불제자들의 문제의식을 재해석했다. 그래서 기존의 <금강경> 해석들에 던지는

기존의 틀을 깨다. 재가신도들이 보시하는 이면에는 ‘보시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기적인 탐욕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또 조계정전인 <아함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늑다라삼마삼보리’라는 용어가 대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집약한 새로운 언어라고 말한다.

다. 즉 당시 승단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슬로건인 셈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은 그 타당성 여부를 떠나 현대 불교의 실천적 근거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당대의 정제된 승단을 비판하는데 실천만큼 적당한 단어가 또 어디 있겠는가.

김주일 기자



차! 무소유 청정세계로

‘한국 차살림’

정동주 지음
이름 / 1만5천원

전통문화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차를 즐기는 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차를 마시는 모인 차회(茶會)만도 전국적으로 300개가 넘으며 차 인구는 3백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차문화는 과연 우리의 ‘전통 문화’인가?

18년째 차나무 키우고 차를 만들고 있는 소설가 정동주(54)씨는 최근 펴낸 <한국 차살림>(이름에서 “한국 차문화는 정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차는 마시는 손가락 모양이나 차인이 입는 옷감의 종류, 차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차의 세계는 소유욕에 불붙지 않고 무소유의 청정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인위적이

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소박해서 누구하고도 불편하지 않게 마시는 것이 바로 차”라고 말한다. 우리 차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저자는 우리 다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일본 다도의 원류를 찾아가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일본 차문화의 정점에 있는 이른바 ‘초암차(草庵茶)’법, ‘농차(農茶)’법을 김시습의 ‘매월당 차법’, 우리 사찰의 발우공양법 등과 상세히 비교하고, 여러 문헌들을 제시하며 그 뿌리가 한국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는 이 책에서 차인이 가져야 할 정신자세 등을 이야기 하면서 우리 차문화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차나무 키우기부터 차 만들기, 차 달이기, 차 마시기 등 일련의 과정을 ‘차살림’으로 부르자고 제안한다. ‘차살림’이란 말에는 상대에 대한 존경과 배려, 그리고 평등의 사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셀서 10

책방 역사이론 집결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가장 행복한 공부	황호성 스님	시공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공리	공리
3	소리없는 소리	세심사재학 시월	시월
4	유식 30송	서광스님	불광
5	화	탁남한 명진	명진
6	스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월성스님	웃는나무
7	할	한암대종사	휴먼앤북스
8	물은 담을 알고 있다.	에모투마사투	나무심는사람
9	불자의 가족사랑	김현준 호림	호림
10	네가치 마음챙기는 공부	각락스님 울림	초기불현연구원

도서 안내: (02) 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역사이론 전화: (02) 737-0695

영험도량

탁미승 예원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宗門第一書 碧巖錄 懸吐法微一愚 譯解 泰華淨圓 平心寺의 정원스님이 毛筆로 手書한 벽암록의 영신본

벽암록

역해본 원본

碧巖錄

卅餘年前初學時 卅餘年前初學時 卅餘年前初學時 卅餘年前初學時

黑底字兮白底紙 黑底字兮白底紙 黑底字兮白底紙 黑底字兮白底紙

譯解書刊將十載 譯解書刊將十載 譯解書刊將十載 譯解書刊將十載

有求索人付意味 有求索人付意味 有求索人付意味 有求索人付意味

果師燒却戒學語 果師燒却戒學語 果師燒却戒學語 果師燒却戒學語

至今流通一場愁 至今流通一場愁 至今流通一場愁 至今流通一場愁

抹底何當限碧巖 抹底何當限碧巖 抹底何當限碧巖 抹底何當限碧巖

看他本師涅槃時 看他本師涅槃時 看他本師涅槃時 看他本師涅槃時

無所說已多語 無所說已多語 無所說已多語 無所說已多語

倚天太阿不容擬 倚天太阿不容擬 倚天太阿不容擬 倚天太阿不容擬

- 泰華淨圓 -

300절 안장판 / 정가 140,000원

도서출판 수미산 0213672-4276

天一氣功

세계최초로 발명특허 받은 건강법

◆ 단체강의한곳 :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삼성종합화학(주), 한국중공업외 다수

道家, 佛家에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 치료법 공개! 누구나 5박 6일이면 氣 치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천일기공 연구회에서는 가정에서 자기 스스로 천주교정 운동을 하여 백병을 다스리는 건강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은 100%가 낫는, 천주의 변형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인의 99%가 골반과 척추가 변형되어 있으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골반, 척추 문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만성 질환자의 경우 백가지의 치료법보다 먼저 골반, 척추를 바로 잡는 것이 병을 고치는 근본적인 치료법입니다.

천일기공 <정가10,000원>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만성 디스크(탈출, 협착, 만곡, 측만) 요통, 좌골신경통, 목의통증, 만성두통, 관절통, 오십근, 견비통, 오십골, 생리통, 수족냉증, 심장병, 위장병, 간장병, 비만, 불면증, 고혈압, 인플루엔자, 허리근육통, 만성피로, 발기불능 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과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주말 무료체험 교실 운영 www.chgg.co.kr

- 천주교정운동법, 오장육부 氣, 치유법, 통증해소법, 비만감량법 등을 무료로 가르쳐드립니다. (선착순 20명만) T. 02-3436-3206

* 책신청방법 : 아래계좌로 수송료 2000원을 입금시키고 천화주사비 책(390페이지)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후회: 013094-02-213631 주문서]

도서출판 건강한 세상, 책신청 전화: 1544-3246

홍보단 운영하실분, 즉석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명특허 받은 의료용구 T. 02-3436-3207

무료체험실 부산 525-4849, 제주 712-9001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지진류·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어깨결림, 우울증, 약용,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맥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문 알면 자택·사무실·조상묘소의 수맥·지자기·지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폰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 9596-4848